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6월 10일(금)
...(음력 5월 12일)...
Пятница
10 июня 2022г.
№ 22 (1198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러시아의 날을 축하합니다!



▲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의 주요 명절 중 하나인 '러시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 러시아란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이며, 항상 살고 있는 집이며, 우리가 힘과 마음을 다 쏟아붓는 일입니다.

선조들의 업적과 위대한 승리와 풍부한 전통의 버팀목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러워 하며, 힘을 합쳐 조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수호하겠습니다.

국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특히 이것이 절박합니다.

사할린주는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초 기지이자, 그 속에서의 삶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조국의 안녕을 위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성취와 번영과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러시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 사할린 사회원 의장으로 재선

지난 6월 6일(월) 제 5기 사할린주 사회원의 첫 전체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사회원 의장, 부의장, 그리고 7개 위원회의 임원들이 선정되었다. 사할린주 사회원의 중요 목표는 사할린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연방 시민, 비영리 단체, 국가 당국 및 지방 정부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익 조정을 보장하는데 있다. 사할린주 사회원은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은 전국, 또는 지역, 지방 사회단체 대표들이다. 사회원 위원 10명은 주지사, 10명은 주두마가 선정하고 나머지 10명을 이미 선출된 20명 위원이 뽑는다.

5기 사회원 의장으로 '러시아 지리학' 전 러시아 사회단체 사할린 지역 회원인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 사할린 농업 기계화 기술전문학교 교장이 재선되었고 부의장으로 러시아 연방 사회원 위원이며, '러시아 여성연맹' 전국 사회단체의 사할린 지부 회원인 갈리나 주바, '러시아 민족 총회' 전국 사회단체 사할린 지부 부회장인 빅토르 고르바츠가 선출되었다.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일을 시작한 것을 축하하며 "많은 의원들과 우리는 이미 잘 아는 관계이며, 오랫동안 성과 있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회원 위원에 3명의 사할린 한인이 구성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박순옥('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 실라초와 알료나 춘시코브나('주택 공공사업' 주택 공공사업 분야의 사할린 사회 감독 및 계몽 센터), 지 안드레이 수호비츠('푸쉬킨 제1 김나지아' 졸업생 및 학부모 협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사회단체)회원이 있다.

이날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이 사할린 사회원의 민족간관계 및 공공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고 전해졌다.

(본사 기자)

단신

사할린주, 돈바스 시 지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 정부 회의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협력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에 대해 설명했다.

주 정부와 사할린 지역의 사업가들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사흐초르스크 시 복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사할린주 대표단이 현지에서 작업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작업계획 작성을 돕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정책, 의료, 교육 등 여러 방면의 사업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몇 달간은 주택 공공사업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했다. 난방 시기가 되기 전에 사회적 시설과 주택 마련을 돕고, 상수도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 수십 개의 지역들이 이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도시들과 지방자치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할린주, 연어 성어기 결정

사할린에서 연어와 송어 성어기를 맞아 조업 기간이 정해진 가운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해안 엘리자베타 곶과 포기바 곶 사이에서 연어와 송어 조업이 가능해진다. 북동부 해안가 엘리자베타 곶과 켄트페니에 곶 구역에서는 좀더 늦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업이 가능하고, 또한 니이스키 해안과 아누친 해협으로부터 남쪽으로 7km의 다기 해협까지 해역에서 8월 20일까지 조업할 수 있다.

켄트페니에 해협부터 소이모노브 곶까지의 켄트페니에 해안 구역에서는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오직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대표들에게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투루프 섬에서는 7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연어류(연어, 송어, 네르카) 조업이 가능하고, 쿠나쉬르 섬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연어와 송어잡이가 허용된다.

사할린주 수렵·산림청의 인사이동

수렵·산림청 청장의 직무 이동과 관련하여 2022년 6월8 일부로 블라디미르 코르넬 청장이 휴가 후 사퇴하게 되어 임시 대행으로 다닐라 두다레브 부청장이 맡게 된다.

예브게니 지야츠코브, 쿠릴열도 개발 감독본부 지도자로 임명

'사할린주 및 쿠릴열도 사회·경제개발 연방 프로그램 시행' 감독본부 지도자로 지야츠코브 예브게니 올레고위치가 부임했다고 주 건설부가 전했다.

새 대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건축·건설대학에서 산업 및 도시 건설 방면의 <건축 기술>을 전공했고 건설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았으며 건설 노동에서부터 큰 건설 회사 부대표이사까지 하였다.

사할린 사회에서 인정 받는 위상 높은 단체 '사할린주한인협회'

사 할 린 주 한 인 협 회 창 립 30 주 년

올해 사할린 주한인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박순옥** 주한인협회장과 만나 동협회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주 한인협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한인협회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첫 사할린 한인단체들이 1988-89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중 현 주 한인협회도 있었습니다. 단체는 모국땅을 45여 년동안 밟지 못한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여러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 재회, 모국방문, 영주 귀국, 한민족 문화와 한국어 교육 되살리기 운동 등, 여러 문제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989년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공식 등록은 1992년 3월 28일에 했습니다. 협회 모든 회장들이 본회 활동에 많이 공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회장은 고 김민웅 씨였는데 이분은 한민족 문화 재생과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등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대 회장으로는 이춘형 씨 많은 사회활동을 했고, 3대 회장은 현재 협회 고문으로 적극적으로 활약하시는 김홍지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김홍지 회장 때는 일본이 지원하는 사할린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그 프로젝트에 따라 1세대 영주

귀국사업이 시작되었고,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곳에서 문화센터 건설 사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박해룡 4대 회장 때에는 한국에서 안산고향 마을과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한인 문화센터가 준공되었죠. 5대 임용균 회장은 28개의 한인단체를 단합시켰고, 제임기는 연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우리 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은 두 임기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두 번째 임기를 하니 이번에 새 회장이 협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 주한인협회가 그 동안 무엇을 달성하신 것 같은지요? 그리고 중요 활동들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제 생각엔 그 동안 단체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러 관계 발전에, 공공외교에 힘을 크게 썼습니다. 물론 한국 적십자사와 일본 적십자사와 함께 일시 모국방문, 영주 귀국 사업을 해왔고 한민족 문화, 전통과 풍습 유지, 한국어 교육 발전 등등 사할린 한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늘 신경을 썼습니다. 2021년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사할린 한인 활동가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2019년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사할린을 방문한 이후 특별법 추진을 위해 저와 함께



협회 김홍지 고문과 그 당시 주 여성회 회장을 하신 김웨철씨가 방한하여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 피켓을 한국에 귀국하신 어르신들도 응원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었죠. 이 법에 우리에게 만족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에 수정을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단체는 주내 12개 구역에 17개 지부가 있는데 협회는 사할린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고향이 한국이지만 2-3-4세대에게는 러시아 사할린이 모국이고 고향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삶을 살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수가 이곳에서 앞으로 계속 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러시아의 사회인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민족 문화를 러시아인

들에게 알리는 게 우리의 중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가 사할린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문화센터 옆에 '아리랑'소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한민족 문화를 되살리고자 조성된 이 휴식 공간은 시민들에게는 물론, 사할린 한인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여러 행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인협회는 항상 행사가 많군요. 올해는 어떤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까?

- 일부 행사(음력설 행사, 여성의 날, 아버지 날 등)는 이미 진행되었고 앞으로 여러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치르는 광복절 행사입니다. 지방에서도 이 명절을 기념하지만, 물론 우리 중심도시보다 규모가 작아요. 이번 여름에 홈스크, 체호브, 토마리, 아니와, 코르사코브, 등 - 여러 지방에서 '한 가정에서'민족 축제를 추진하고 마카로브에서는 러시아와 한민족 문화를 위주로 하여 '우리는 함께'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가정에서'축제와 '우리는 함께'축제는 이미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축제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홈스크에서 '뽀빠'축제를 개최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축제

를 개최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니축구시합도 할 계획이고 다른 스포츠축제도 추진할 것입니다. '김치'축제도 인기가 많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번 여름에 1세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센터 내 사할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이와 관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하러 문화센터를 찾았더니 강당에서 행사가 있네요. 사할린 여행을 하러온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구요.

- 네, 맞습니다. 러시아 관광청에서 '여행보다 더 크다'란 기획을 추진하는데 학생들, 또는 자기 나라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 여행을 시켜줍니다. 특히 여러 경연에서 우수한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또는 할인 가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단체가 이 기획에 참여하여 사할린에 다녀가는 단체 손님들이 한민족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에서 하루는 한인문화센터에서 보냅니다. 회장으로서 저는 1-1.5시간 동안 사할린 한인에 관한 특강을 한 후 한민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교실들이 펼쳐집니다. 어제 60명이 문화센터를 찾아와 사할린 한인사와 단체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한글 쓰기, 비빔밥과 잡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약 30명이 찾아와서 같은 문화체험을 했죠. 호기심이 아주 많고 질문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 센터에서의 코스는 여행자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문화관광센터와도 사할린 한인 음식에 관한 단독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행사 실시에는 많은 손이 필요할텐데요.

- 네,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도 우시고 주 한국어 교사협회를 통해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생도 유치하고, 현재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는 청년협회 회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들이 협회를 떠나면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회와 함께 일하는 모든 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 연말에 주 한인협회 대표자 선거회의가 있을 텐데 새 협회장 후보자들을 알 수 있습니까?

- 아직은 미결입니다. 공동료들과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모 저 모

주 도서관에서 러시아의 날 행사 준비

러시아의 날을 맞아 '러시아 - 영웅의 나라' 활동의 일환으로 주제별 행사들이 6월 6일부터 20일까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린다. 러시아의 날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주권에 대한 포고가 채택된 날(1990년 6월 12일)로서 1992년부터 매해 러시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전문가들은 독자들을 위해 <러시아는 나의 조국> 전시회를 비롯해 다양하게 기획된 주제별 행사 3개를 준비했다.

<러시아의 국가적 상징>, <러시아의 역사>, <러시아의 영웅> 등 세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람회에는 논문, 학습 자료, 정기 간행물들의 기사들, 사할린 주민들을 위해 소비에트 연방 영웅들 니콜라이 다닐로비치 그리첸코, 러시아의 영웅 알렉세이 유리예비치 포민을 주제로 한 향토 서적들이 전시되며, 전람회는 6월 20일까지 주 일반 과학도서관 3층 로비에서 열린다. 6월 10일 10시에는 도서관 강당에서 <잊을 수 없는 공적>을 주제로 한 대담이 진행되는데 이에 사할린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포돌스키 사관생도들과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영웅들, 대조국전쟁에서 사할린의 영웅들의 업적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지식: 역사와 현대' 온라인 퀴즈대회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국민 의식과 애국심 교육 및 조국에 대해 불변하는 존경의 자세를 조성하기 위한 테스트이다.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주제별 30개 문항에 답을 함으로써 국가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

Мероприятия ко Дню России подготовили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Тема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акции "Россия — страна героев", посвященной Дню России, пройду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 6 по 20 июня. День России отмечается ежегодно с 1992 года в день принятия Декларации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уверенитете РСФСР (12 июня 1990 года).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ОУНБ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читателей три разноплановых тема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 среди которых выставка "Россия — Родина моя". Она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раздел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имволы России",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и "Герои России". На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монографии,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и статьи из периодических издан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е изда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сахалинцам Герою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Д. Гриценко и Герою России А.Ю. Фомину. Выставка расположена в фойе 3 этажа СахОУНБ 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20 июня.

Беседа "Подвиги, которые нельзя забыть!" пройдет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библиотеки 10 июня в 10:00.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ут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Ребятам расскажут о подвигах подольских курсантов, героях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ы, а также о сахалинцах-героя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акж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нлайн-викторине "Знание о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уважи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одной стране и воспитание гражданственности и патриотизма.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об истории и традициях страны можно до 15 июня, ответив на 30 тема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생태의 날을 맞아 사할린 주민들 해안 청소

6월 5일 생태의 날을 기념하여 '깨끗한 섬들' 생태 행사가 프리고로드니 구역에서 진행됐다.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의 지

원으로 코르사코브의 청년 주도센터가 생활 쓰레기 수거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 5인 1조의 4조가 참가했다.

각 팀들을 위해 해안가에서 일정 시간 내에 청소해야 하는 구역이 배정되었다.

수거된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우승팀이 결정되는 대회는 2차로 진행되며, 1차에서는 생태를 주제로 하는 퀴즈대회를 연 가운데 각 팀들은 '주요 배수지는 어디에 있는지?', '플라스틱병이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지구에서 가장 흔히 버려지는 쓰레기는?', '몇 년도에 '채집 금지 목록집'이 출간 됐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했다. 각 문제에 답이 맞을 경우 2차에서 수거해야 하는 쓰레기 양에 10리터가 점수로 추가된다.

지적 준비활동을 한 후, 참가자 모두 사이좋게 배정된 구역으로 떠났다. 청소 구역이 보기에 깨끗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생태 활동대원들은 20분 만에 유리병, 플라스틱병, 금속 캔, 일회용 컵, 주스 팩, 비닐 봉투들로 가득한 50리터 - 100리터 이상의 쓰레기를 자루에 모았다.

참가자들이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총 1000 리터 정도라고 코르사코브 시행정부가 전했다.

В День эколога сахалинцы устроили уборку на побережье

Экологическая игра "Чистые острова", приуроченная ко Дню эколога, отмечаемого 5 июня, прошла в Пригородном.

Корсаковским центром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 проведен конкурс по сбору бытового мусора.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четыре команды по пять человек.

Для каждой из команд на берегу был отведен сектор, который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очистить за назначенное время. Победитель определялся по количеству собранного мусора. **(8면에 계속)**

사할린주 한인협회, 창립 30주년 성대히 기념

지난 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귀빈들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주 한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날 손님들을 환영하고, 본 협회 역사와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며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협회 동료들을 비롯해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30주년'이란 기념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그 동안 해온 사업과 활동을 다시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이날 사할린주 제1부지사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사할린주 두마 의장 안드레이 하포츠킨,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세르게이 나드사진,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을 비롯해 수많은 공식 인사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의 따뜻한 축사가 계속 이어졌다.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는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와 주정부의 이름으로 3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며,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섬지역의 삶에 독특한 풍미를 가져다주는 독특한 단체다. 한민족 문화는 말 그대로 음악, 스포츠, 교육, 요리 등 - 모든 영역에서 잘 소개되어 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우리는 각 민족의 전통, 역사, 풍습 등을 존경하고 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30년 동안 사할린주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진정성 있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온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그는 이날 주 한인협회에 주정부의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의 주 정부 감사장을 김홍지 고문, 주 이산가족협회 박경춘 회장과 고르노사위드스크 한인회 전윤식 회장에게도 수여했다. 일부 지방 회장들은 사할린주 75주년 기념기장으로 표창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은 "우리 동포들이 사할린 사회에 잘 정착하고 모범적인 동포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 주 한인협회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사할린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통해 사할린주 한인협회에게 축하한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역시 주 한인협회의 중요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일시 모국방문, 역방문 다양한 사업을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에 334명이 영주귀국하였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할린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같은 단체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하였다.

축사를 한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이야기, 한민족 문화와 접촉하는 이야기, 한인협회와 협력하고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날 김경호 동포가수가 노래 〈별고도 가까운 한국〉(작사 장태호, 작곡 세르게이 웨르비츠키)를 불러 행사 참가자들은 강제징용된 한인 동포들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기도 했다.

또한 이날 주한인협회 관계자들에게 수많은 감사장과 꽃다발이 쏟아져 축하 분위기로 흥성거렸다. 이 분위기를 타고 〈하늘〉타악기 팀(지도 송전석),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무용단(지도 김 예브게니아), 최 율리아와 오 블라디미르 동포가수들의 무대가 한층 축하 분위기를 높였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 이예식)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녹슨 지붕에 앉아 빗소리 듣는다 / 김창균

이렇게 세월이 한 곳으로만 올라가는 법도 있구나.

유난히 녹이 많이 쓴 함석지붕에 앉아
늦가을 들뜬을 본다.

어느 먼 옛날의 한 목수가 지붕을 못질할 때
못질한 부분의 상처가 이렇게 덧날 줄 알았을까.

밤이 되면서 이 상처 속으로 별들이 들어가고
가끔 빗물이 스며들어, 이윽고
사람 떠난 구들장 위엔 꽃들이 조그만 얼굴을
내민다.

"강원도의 함. 드디어 치악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렇듯 '악'이 들어간 산은 일단 힘듭니다. 그러니 고백하자면 어떻게든 꾀를 내야 했어요. 쉬운 코스를 찾았던 겁니다. 다행히 조금 쉬운 코스가 있어 그리로 오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날 힘든 복병은 의외로 '떡거리'. 늘 김밥이나 떡을 조금씩 들고 오던 친구들이 이날만큼은 어쩐지 모두 빈손이었어요. 새벽 네 시 반 일어나서 눈곱도 떼지 않은 채 원주까지 쉬지 않고 운전. 금방 오를 줄 알았는데, '악'이 들어가서 인지 제게 치악산은 쉽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어쩌지 꽤 내려 와 숙소로 도착한 시간이 무려 저녁 다섯 시 반. 신새벽부터 하루 종일 쫓쫓 굶은 거지요. 비로봉 정상에서 김밥, 도넛과 불고기, 순대와 사과, 안흥편 빵을 드시던 분들께 아무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어도, 돌아오는 건 외면뿐. 사과 껍질이라도 먹고 싶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정말이지 야멸찬 세상이라니. 진짜 다들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보아하니 러시아의 빅토리아 사장님께서는 올해 '랴구쉬카(개구리) 산'에 오르셨네요. 저는 사할린의 개구리 산 정상 높이보다 어떤 도시락을 싸 가셨을까 이런 게 궁금한 사람이잖아요. 알이 튼실한 새우구이와 어쩐지 사슬릭, 연어 알, 청어 요리, 자이언트 킹 크랩 이런 거 드셨을 것 같아요. 검정색 장갑 끼고 먹는 햄버거도 죽여주던데, 러시아는. 벨루가 보드카 그리고 아르메니안 꼬냑도 준비하셨겠지요.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사슬릭은 가가린 호텔이 정말이지 꿀맛이던데. 제가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간다면 전 제일 먼저 가가린 호텔의 사슬릭과 새우구이를 먹을래요. 아, 이번 주 원고, 어찌 이리 허기진 걸까요. 이 원고의 끝이 어디에서 멈출지 저 역시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김창균 시인님께 혼날 노릇이 건만 이 모든 건 모두 김창균 시인 탓일 수도 있어요. 외모로 봐서 어쩐지 허기진 느낌이시거든요, 이분이. 목소리는 더더욱. 그리하여 이토록 근사한 상념을 일으켰겠지만, 아무튼 다시 저녁 다섯 시반으로!

행색만 사람 풀이지 눈빛으로만 봐서는 친구들이 어느새 좀비로 돌변해 있더라구요. 서둘러 숯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우정이 돈독하다지만 삼겹살 앞에서는 우정이고 뭐고 없는 거잖아요. 정말이지 허겁지겁 설익은 채 잘들 먹더라고요. 저요? 저야 뭐 워낙 켄틀한 편이니, 우아하게 씹도 한 점 써서, 꽃들도 바라보며 천천히 먹었다면 민진 앞으실 테고.

친구의 외가. 배불리 먹었더니 그제서야 백년을 넘긴 고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는 비도 내렸어요. 단아한 한옥의 처마 끝 단비를 보며 사념에 젖었습니다. 1백년 전 누군가는 이리저리 분주하게 서까래를 올리고, 대들보며, 조심조심 기단을 세웠겠지요. 그렇게 어느 부자집 한옥의 역사가 1백년을 바라보며 구름처럼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걸 지켜봤겠지요. 유구한 역사를 뒤로한 실로 정갈한 삶의 철학에 경의를!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사전등록 시작

- 5월 30일부터 8월 31일 자정까지 사전 등록 신청 접수

-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려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올해 대회 슬로건을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로 확정하고, 8월 31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회 사전등록은 '한상넷(www.hansang.net)'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전시회 부스 참가 등록 및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기업전시회 및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스타트업 피칭대회 등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과 리딩CEO포럼, 한상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등 한상 네트워크 행사, 전문가 세미나,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 면접, 한상-청년 온라인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성곤 이사장은 "대한민국 친환경 신산업도시로 부상하는 울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20차 세계한상대회'의 참가자들이 좋은 경



험과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울산대회 참가자들은 내년 미국대회까지 연계된 비즈니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 한상과 국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대회 본부사무국(Tel. 02-3415-0051~52)과 카카오톡에서 '세계한상대회'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Тано-2022 на Ташморе

KoryoTV: 4 июня на берегу Ташморя состоялось празднование Тано,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Ташкентским областным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Праздник Тано всегда имел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в календарной обрядности корейцев и был связан с земледельческими культами и надеждами на получение богатого урожая осенью. Среди его характерных черт — массовые народные гуляния, разнообразные состязания в силе, ловкости, остроумии и щедро накрытый стол со всевозможными угощениями.

Конечно, каждое время привносит в празднование нечто новое, но именно эти традиции остаются неизменным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Как отметили в своих выступлениях депутат Олий Мажлиса,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Виктор П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Ташкент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КЦ Григорий Хва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Ассоциации Сергей Степанович Когай,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Та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праздник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покол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и молодежь,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традиции продолжают жить.

В этом году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городские и районны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Ташкента и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и предписывают традиции праздника, его отметили очень весело: звучали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и современные эстрадные песни, исполнялись зажигательные танцы,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сь фокусы и шуточные сценки.

На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ой сцене выступили народные ансамбли «Саранг» (Куйичирчикский районный РККЦ), «Бом парам» (х-во «Узбекистан», Юкоричирчикский РККЦ), хоровые коллективы «Богым» (х-во «Гулистан»), «Бом нояль» (х-во «Хван Ман Гым»), «Сиенго» (х-во «А.Ясавий», Юкоричирчикский РККЦ), «Вдохновение» (Чирчикский ГККЦ);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Янгиольского РККЦ, а также финалист конкурса вокалистов «60+» Максим Ли и коллектив «Дива».

Наряду с самодеятельными артистами в празднике выступил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 заслуженная артистка Узбекистана Галина Шин, лауреаты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Магдалина Ким, Ирина Нам, иллюзионист Дмитрий Ким, исполнители Вадим Хван и Юлия Ким, детская студия «Анен» и танцев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Мисо».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метила 30-летний юбилей

4 июн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праздновала тридцатилетие. Участников объединения поздрав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 Друзья,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этим замечате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Руководство области всячески способствует тому, чтобы каждый житель мог проявить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оставшись при этом верным нашей больш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н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вносит неповторимый колорит в жизн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представлена у нас буквально во всех сферах — музыке, спорте, образовании и кухне. Вместе мы решаем множество социальных задач. Такого нет нигд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сильны — мы уважаем традиции, историю и быт каждого народа, всех наций. За эти 30 лет ваше объединение внесло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вашу уверенную, эффективную и системную работу,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За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ычаев и традиций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наградил организацию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Кроме того,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получили 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 Ким Хон Ди, Пак Ген Чун и Тен Юн Сик.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объединения — Ю Кен Сун, Чен Ин Зыя, Юн Тэ Ок, И Те Чуль, Ким Хе Чери, Ким Ден Гир —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памятными знаками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а создана 28 марта 1992 года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хранения 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Сегодня она работает в 12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 состав объединения входят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организация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учителей, федерация ссырым, федерация тхэквондо, ассоциация бизнесменов и женсовет. Это позволяет организаци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различные проекты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собравшимся и председателю организации Оксане Пак обратился также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вклад, которы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носят в развити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 всех ключевых сферах. А в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выполняет важную миссию — сохраняет этническую самобыт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традиции и язык.

При этом самобытные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уже давно прочно вошли в нашу жизнь.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ваше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Сегодня вы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нашей остров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наша тесная связь развивалась и крепла, — сказал мэр.

Оксана Пак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благодарила Сергея Надсадина за проду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и отдельно еще раз за сквер Ариран, который был построе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Мы, конечно, понимаем, что сквер построен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Но мы думаем, что этот сквер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одарила именно нам, — сказала с улыбкой Оксана Пак. — К юбилею принято подводить итоги и строить планы. Уверена, что мы сделали очень много для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ций. Яркие выступления 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будем дальше работать над законом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родолж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ород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Сред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гостей, решивших поздравить РООСК с юбилеем,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Носов,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дзухиро Куно, начальни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ак Сан Тэ, депутаты областной и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многие др..

В праздничной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ШИ «Этнос»,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ыль», певец Ким Ген Хо, самодеятельные певцы Че Юлия и О Владимир.

Старейший телеведущий РК Сон Хэ умер в возрасте 95 лет

Сон Хэ, старейший телеведущ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кончался утром 8 июня в своём доме в Сеуле в возрасте 95 лет. В марте у него был подтверждён вирус COVID-19, и его после этог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ли для лечения.

Сон Хэ — творческий псевдоним, а настоящее имя — Сон Бок Хи. Он родился 27 апреля 1927 года в уезде Чэрён-гу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эдо. В возрасте 22 лет он поступил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школу искусств Хэчжу, в которой начал учиться вокальному пению, но не смог довести учёбу до конца. Его планам помешало начало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Судьба распорядилась так, что однажды он вышел из дома и не вернулся обратно, даже не успев попрощаться с семьёй. Он бежал на ю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пав сначала на остров Ёнпхёдо, а затем в Пусан, где служил в армии в качестве связиста.

В 1955 году Сон Хэ начал карьеру сольного певца и ведущего концертов, выступал на радио и снимался в юмористических телепередачах. С 1969 по 1986 год он вёл популярную утреннюю радиопередачу «Бродя по аллее», а в мае 1988 года начал вести еженедельную музыкальную передачу «Все-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есен» на телеканале KBS1.

Он вёл её 34 года, практически до самой смерти, и сейчас уже трудно представить «Все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есен» без Сон Хэ. Он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 что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конца жизни, а последний выпуск передачи проведёт на родине, в уезде Чэрён-гун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эдо.

К сожалению, ему было не суждено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ю заветную мечту. Более 60 лет Сон Хэ прожил в счастливом браке со своей супругой Сок Ок И, которая покинула этот мир в 2018 году. У супругов было трое детей — сын и две дочери. Сын трагически погиб в 1986 году, а обе дочери живы.

Активному долголетию Сон Хэ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то, что он никогда не пользовался автомобилем, отдавая предпочт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му транспорту, регулярно посещал баню. Его любимым выражением было «Движение — это жизнь». В этом году Сон Хэ был занесён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как старейший в мире ведущий музыкального телешоу.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обсудили ответные меры на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С начала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18 раз проводила ракетные пуски, что усугубило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Учитывая серьёзность ситуаци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овели 8 июня закрытое совещание, посвящённое ответным мерам на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и укреплению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траны. Это была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после начала раб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 Сок Ёля.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вон Сон Дон назвал возможное проведение Пхеньяном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 условия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стране коронавируса «необдуманным и неразумным шагом».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будет более идти на поводу у Пхенья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ка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отличаться от аналогичной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режние власти страны «оберегали» Север, используя в случае запуска Севером ракет термин «неустановленный снаряд».

РК и США запустили восемь ракет в ответ на ракетные пуски КНДР

6 июня РК и США запустили восемь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в ответ на состоявшиеся накануне ракетные пус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в период с 4:45 до 4:55 утра запущены армейские так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класса «земля-земля» (ATACMS). Совместный запуск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возможности союзников по нанесению немедленных высокоточных ударов по источникам провокаций, их силам управления и поддерж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настоятельно призывают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у немедленно прекратить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е усиливают военную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Любые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будут встрече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реакцие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5 июн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восемь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которые пролетели от 110 до 670 километров со скоростью от 3 до 6 Маха, достигнув высоты от 25 до 90 километров. Запусти производились из четырёх различных мес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25 ма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тр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в том числе, как полагают эксперты,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ую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К и США впервые с 2017 года провели ответные ракетные пуски.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18 ракетных пусков.

В РК отменен обязат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из-за рубежа

С 8 июня все прибывающие в РК из-за рубежа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семи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Прежде освобождение касалось только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3 июн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ает принимать меры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с учётом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ресурсов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сообщил о намерении нормализо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воздушное сообщен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аршрутов сняты также с 8 июня. Это позволит нормализовать работу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просом на их услуги. Несмотря на отмену карантина, сохраняется требование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предъявлении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ПЦР-теста и сдаче теста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KINTEX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пищевой отрасли AСЕАН

С 7 по 10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KINTEX в городе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торговая выставка AСЕАН. Об этом 3 июня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К и AСЕАН. 45 компаний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 10 стран AСЕАН представят свою продукцию южнокорейским деловым кругам.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 пищевой отрасли,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содействия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28 июня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семинар по вопросу активизации торговли в пищевой отрасли.

4 июня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обслужил рекордное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4 июн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обслужил 40.833 пассажир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эропорта, это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 3 марта 2020 года, когда в РК началос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андемии COVID-19. Увеличение частичн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первые в июне выходные дни продолжаются три дня, поскольку 6 июня отмечают День памяти павших за родину. 5 июня аэропорт обслужил около 40 тыс. человек, а 6 июня — 33 тыс. человек. (RKI)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пригрозили Пхеньяну авианосцем

Со 2 по 4 июня в районе Окинавы США 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и крупные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американский атомный авианосец. Это стало первым случаем за почти пять лет, когда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задействовали авианосец. По слова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данный ход стал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Пхеньяну.

О состоявшихся маневрах сегодня сообщил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бъедин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КНШ ВС РК). Соглас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учения прошли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со 2 по 4 июн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дах и воздуш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к юго-востоку от японской Окинавы. В них со стороны СШ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атомный авианосец "Рональд Рейган"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100 тысяч тонн, крейсер Antietam (9800 тонн), эсминец Benfold (6900 тонн), оснащенный боев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управляющей системой Aegis, а также танкер Big Horn. От Южной Кореи участвовали универсальный десантный корабль Марадо (водоизмещение 14 500 тонн), эсминец "Король Сечжон" с системой Aegis (7600 тонн) и эсминец "Король Мунму" (4400 тонн). Корейские корабли в составе более масштаб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следовали в сторону Гавайев, где они 29 июня - 4 июля намерен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учениях BMC RIMPAC, проводимых по инициативе США.

По информации ОКНШ ВС РК, в ходе маневров у Окинавы были отработаны задачи по борьбе с вражескими боевыми кораблями, подводными лодками, перехвату судов и логистике. При этом союзники не скрывали, что главным потенциальным противником был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утем проведения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й силами ударных групп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США укрепили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решительно отреагировать на любые провокации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подчеркнули в Минобороны РК.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тили,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впервые за почти пять лет задействовали в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ях авианосец. В предыдущий раз это произошло в начале ноября 2017 г., когд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была высокая напряженность. С тех пор Сеул ради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отказывался от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енных мускулов. Однако с 10 мая в РК президентом стал консерватор Юн Сок Ёль, который известен своей проамериканской и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ориентацией. Он сразу заявил, что при нем США и РК возобновят учения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что и стал выполнять на деле.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прошедшего 21 мая в Сеул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аммита Юн Сок Ёль и Джо Байден договорилис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маневры, привлекая к ним в том числ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виды вооружени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Минюст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по защите прав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Сеул, 5 июн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разработала комплекс мер по усилению защиты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центрах содержания под стражей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включая принятие надзорителя, отвечающего за возможные наруш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публиковало уведомление о своем стремлении к частичному пересмотру законов и правил, регулирующих процедуру задержания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защитных средств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под стражей.

Этот шаг был предприня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расследов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казало, что марокканец подвергся жестокому обращению во время содержания под стражей в одиночной камере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в Хвасоне, примерно в 40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Сеула,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пересмотра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мет систему для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иссара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возможных нарушений.

Также при задержании нелегалов н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еревка,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В список

защит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были добавлены защитные шлемы и стулья.

В пересмотре также четко говорится, что такое защитное снаряжение не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целях наказания, заяв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Кроме того, в пересмотренном варианте говорится, что срок содержания заключенного в одиночной камере должен быть ограничен максимум 72 часами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одления этого срока еще раз.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также должен рассмотреть официальное возражение заключенного против таких приказов об одиночном заключении и, возможно, отменить приказ после рассмотрения дела, заяв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Заключенный из Марокко в возрасте 30 лет подал петицию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авозащит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утверждая, что с ним плохо обращались. Записи с камер наблюдения показали, что его держали со связанными руками более четырех часов, в головном уборе и перевязали коробочной лентой и кабельными стяжками.

Виолончелистка Чхве Ха Ён победила на конкурсе имени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Южнокорейская виолончелистка Чхве Ха Ён победила на конкурсе имени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На состоявшейся 4 июня в Брюсселе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она была объявлена лучшей среди 12 финалистов. Вторую премию получил Чэнь Ибай из Китая, а третью - Марсель Йоханнес Китс из Эстонии. Денежный приз Чхве Ха Ён составил 25 тыс. евро. Каждый финалист исполнил концерт по своему выбору и неопубликован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немец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Йорга Видманна, написанно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конкурса. Чхве Ха Ён уже была лауреатом ряда меж-

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в том числе, Конкурса имени Иоганнеса Брамса в Австрии. Конкурс, названный в честь королевы Бельгии Елизаветы, проводится с 1937 года. Он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наиболее престижных конкурсов среди классиче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наряду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нкурсом пианистов имени Шопен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нкурсом имени Чайковского. Скрипачи, пианисты и певцы соревнуются каждые три года, а в 2017 году был добавлен конкурс виолончелистов.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 **581 руб. 5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смягчении коронавирус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и социальное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теперь носит сугубо рекоменд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Ограничения были смягчены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разу же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новых рекомендаций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масок и респираторов), а также соблюд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дистанции для граждан оста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только при нахождении в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аптеках, при посещении учреждений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 круглосуточ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и летних загородных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иных случая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и социальное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теперь носит рекоменд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зменения в указ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есе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Напомним, в март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нили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оведение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разрешили общепиту работать ночью.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такое реш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Указо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были сняты ранее действовавш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оведение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Также были отменены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связанные с круглосуточной работой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зидент TOP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крыл крупный бизнес-центр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пания запустил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о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здание «Mega Palace Center». Это десятиэтажный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бизнес-центр с офисами и переговорными комнатами. В нем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рестораны с японской, панзиатской и балканской кухнями, что д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в регион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участв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Еще один проект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воплощен в жизнь. Мы открываем новый современный бизнес-центр, и я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этим событием.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И в целом характеризует Сахалин как территорию с особой деловой активностью, благоприят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уже создано более 1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их количество вырастет в два раза.

Между бизнес-центром и популярной четырехзвездочной гостиницей «Mega Palace Hotel» обустроили мостовой переход. В новое здание перемест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отдел. Это позволило увеличить гостиничный фонд отеля в два раз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размещения — 100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номеров различной категории.

— Мы полагаем, что тако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единств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оптимизации расходов и экономить время, так как мест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организация дел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отдых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одном комплексе. Офисные площадки и номерной фонд, который мы также обновили, функционируют как полноценные составляющие. Благодаря тщательной проработке, настоящее проектное решение в итоге позволило нам создать своеобразный город в городе, максимально обеспечивающий своих жителей необходимы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ОО «Грин Солюшн» Юрий Им.

— Инвесторы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 индустрию туризма и работают на имидж всего Сахалина. Проект компании «Грин Солюшн»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оложительных примеров того, как при помощ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можно реализовать масштабные бизнес-идеи.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вложено более 600 млн рублей. Мы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оказывали резиденту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в решении всех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реализацией проекта, знакового для островной территории,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ООО «УК TOP «Сахалин» (дочернее общество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Михаил Алешин.

Отметим, всего в качестве резидентов TOP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30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проекты на сумму более 23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с планами создания свыше 1860 рабочих мест.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резидентами инвестировано 8,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 нов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получили работу 877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 примеру, в марте резидент TOP открыл на вершине горы Большевик ресторанный комплекс. Ранее были построены три гостиничных комплекса 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Напомним,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были созданы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TOP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урирует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На Сахалине с начала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запустят проект «Киокусинкай — в школу»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а встреча по вопросу запуска в регионе проекта «Киокусинкай — в школу»,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беспла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Его инициатором выступает трёх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мира по контактному каратэ-киокусинкай, обладатель чёрного пояса Хаид Мантаев.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с 2021 года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ся в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высоко оценил данную программу и предложил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инициативу на остальные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мы предлагаем добавить в школы третий — вариативный урок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мимо уже имеющихся двух обязательных. Его цель — не вырастить чемпиона, а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ребёнка о том, что есть такой вид спорта, как кюкусинкай, о его философии и моральных началах. Ес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спорт, а есть искусство. И здесь мы говорим именно об искусстве, потому что в его основе заложена работа по морально-нрав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с детьми, — рассказал Хаид Мантаев.

«Киокусинкай — в школ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 1 сен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Пилотным учебным заведением стан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СОШ №4. Посещение занятий не будет обязательным. Каждый ребёнок сможет решить для себя сам, интересно ли это ему или нет.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оект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и на другие средние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региона. Для этого уже сейчас начата работа по поиску тренеров по каратэ, имеющих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 также по составлению списка школ, в которые их можно будет трудоустроить. Эти задачи пост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перед министром спорта Артёмом Подшиваловым и главой мин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ей Киктевой.

— Уверен, внедрение кюкусинкай в школы повлияет на ребят самым благоприятным образом. Дети смогу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развиваться физически, а кто-то из них захочет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видом спорта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снове,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Ющу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новый соста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ом работы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третился с пятым состав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области,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провела первое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Участники объединения выбр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й, а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миссий организации.

—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началом работы в обновленном составе. Со многими мы уже знакомы и давно плодотворно работаем. Уверен, что и дальше будем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Призываю вас всячески подключиться к большому проекту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который мы реализуем в регионе. Он охватывает самые важные сф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Это медицина,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различн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газификация региона, ремонт дворов и дорог, доступность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его мы реализуем в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акте с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получая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поддержки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области в обеспечении открытости и прозрачности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на предстоящих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 V соста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ст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состава, как и прежде, составляет 3 год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обравшиеся выбрали Владимира Иконникова, член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Его заместителями стали Галина Дзюба,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лен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женщин России» и Виктор Горбач,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 У нас будет работать 7 комиссий — в их ведении будут традиционны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м и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ой, образованием и культурой, молодежью и спор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развитием и ЖКХ,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воспитанием и други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Также мы создаем две рабочие группы —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логии и по вопросам демографии, защиты материнства, отцовства и детства. Мы в них можем приглашать не только члено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но 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лотно занимаются этими вопросами,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депутатов,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В заверш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ики догово-

рились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о регулярных встреча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всегда готов к диалогу. Первую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в конце июня.

Напомним,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ит из 30 членов. 10 человек утверждаются губернатором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отделений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10 члено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утверждаютс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ой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региональ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Сформированный из 20 человек состав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мест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пределяет финальную десятку участников объединения.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и чаще переводить свои машины на газ

За первые три месяца этого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ереоборудовали 500 автомобилей — это в 2,6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ущ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транспорта на метане произошел благодаря увеличению количества газовых заправок, а также компенсации из бюджета региона за переход с бензин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и экономичное топливо.

По данным ООО «Газпром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в 1 квартале 2022 года владельцы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природном газ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экономили на заправке около 17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За этот период благодаря использованию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регионе сократились на 9,6 тысячи тонн, загрязняющих веществ — на 157 тонн.

— Заметный вклад в популяризацию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вносят действу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могу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до 150 тысяч на установку газобалл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всех видов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спользующего природный газ в качестве 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снижен в два раза.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мпенсирует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газомоторной техники и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транспорта. Сервисным центрам по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ю авто на газ возмещают 7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роме тог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едетс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ая работа по увеличению сети газо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й,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Напомним, в 2021 году была введе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АГНКС-2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лись еще 5 передвижных газовых заправок в Холм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Долин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и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ах.

В Чапаево открылась новая амбулатория

В сел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900 человек, потребность в новом медицинском пункте была очень высокой. Старая амбулатория в здании сельсовета не отвечала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ов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строен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разу после небольшой торжественной части в медицинском пункте начался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Наталья Голованенко вместе со своим маленьким сыном сегодня пришла в амбулаторию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Ребенка оперативно осмотрели, прописали лечение.

—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и узкими коридорами, что были в старой амбулатории — все гораздо лучше. Просторно. И взрослым, и с детьми удобно разместиться. Очен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создали,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Амбулатория построена по типовому проекту, оснащена н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Жители села 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пройти прием фельдшера, но и получить телемедицинск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сделать ЭКГ, экспресс-диагностику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уровня глюкозы и холестерина, пройт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осмотр 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или процедуры в дневном стационаре, получить физиолечение,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а также приобрести необходимы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 При планировании объекта рассчитывали на то, чтобы всем жителям было удобно получать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Чтобы было комфортно в помещениях. Немаловажным является размещение амбулатории — в центре села, чтобы и пожилым, и детям было легко добраться из любой точки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Константин Горфункель.

— Такая амбулатория, оснащенная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перв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 сути это маленькая больница.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было больше. Чем больше обследованных пациентов на первичном уровне, тем меньше запущенных случаев и осложнений у наших жителей. Ежегодно таких амбулаторий и ФАПов становится в области все больше, на это выделяются средства не только федерального, н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Новая амбулатория построен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дернизация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ится возведение медицинских пунктов в селах. Новые объекты появятся в Первой Пади, Костромском, Углезаводске, Восточном, Пятиречье и Новой Дерев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규모 꽃 축제가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꽃피는 남쪽> 대규모 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도심이 꽃으로 물들 예정이다. 이 축제는 사할린주 형성 75주년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형성 14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다. 꽃축제에 건축가, 꽃 장식가, 예술단, 화원 운영가, 꽃꽂이 장인들을 초대한다.

시에서는 꽃의 양이 매해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시장의 정책과 주지사의 후원으로 꽃의 양이 2배나 늘었다. 이번 봄에는 기록적인 양인 약 60만 송이의 꽃들이 심겨질 전망이다. 일부 지방자치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 문화, 체육, 스포츠 시설들에 꽃심기를 하고 있다. 솔네츠나야 소공원에서 꽃장식을 선보이면서 주 정부는 더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러 이곳으로 와서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6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6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6월 1일부터 국내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6월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 조치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로 유지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경동대 학생들, 사할린 귀국동포 대상 의료봉사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웅)는 지난 5월 27일 강원도 원주 문막노인복지회관에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치위생학과 등 4개 학과 소속 교수와 학생 29명이 참여한 지역 거주 노인들 대상의 종합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경동대 사회공헌센터(센터장 임용운. 치기공학과 학과장)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혈당측정 및 건강상담(간호학과) ▷낙상예방 운동지도(물리치료학과) ▷체온·시력검사 등 건강안녕 문진기록(보건관리학과) ▷올바른 구강관리(치위생학과) 등의 노인건강 증진 활동을 펼쳐,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문막노인복지관과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에 힘입어 주민 60여 명 모두가 1:1 맞춤 상담과 교육을 받았으며, 이날은 특히 문막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가 다수 참석하였다. 경동대 김명준 교수(의료생명보건대학장)는 "여생을 모국에서 지내기로 한 동포들에게 봉사하게 되어 더욱 보람이 컸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다시 만난 우토로,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를



인사를 나눠주시는 한금봉 어머니(좌)



방화사건으로 불타버린 입간판들

(전호의 계속)

내년에 이 아파트가 완공되어 우토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지난했던 투쟁이 마무리된다.

2005년 2월 지구촌동포연대는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우토로 마을을 찾아 워크숍을 진행하고 동포들을 면담하며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의원 모임과 <역사청산! 거주권쟁취! 우토로 국제대체회의>를 조직했다. 우토로를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하여 아름다운 재단, 민중의 소리, 한겨레21, MBC문화방송이 함께 했다. 그와 병행하여 한국정부가 재일동포들의 문제를 방치한 기민정책 또한 우토로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다각도로 압박했다.

의원 모임의 현장방문, 현안 질의와 국감, 대정부질문 등을 이어갔다. 당시 한국 정부의 30억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토지매입을 주저하는 등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토지를 매입하고 2014년 우지시가 시영주택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지금까지 도로와 시영주택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깨끗한 도로, 새로 지은 아파트, 그리고 그 한켠에 들어선 우토로 평화기념관. 우토로는 그렇게 변하고 있었다.

다채로운 우토로 평화기념관 개관식 풍경

이윽고 도착한 우토로 평화기념관은 개관식 준비로 분주했다.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우토로 서포터즈들이 안내 등을 돕고 있었고, 눈이 마주친 김수환(기념관 부관장)과의 반가운 해후의 포옹도 잠시, TV와 노트북 연결을 체크하고, 유튜브 생중계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준비하기에 바빴다.

개관식에는 한국과 일본의 각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창일 대사를 대신하여 주일대사관 영사와 재외동포재단 주재원이 도쿄에서 왔고, 오사카 총영사관과 담당자, 교토 민단, 총련 등 동포단체장들도 참석하였다. 우토로 출신 뮤지컬 배우 정아미의 '아리랑' 제창으로 시작된 개관식은 타가와 아키코 관장의 인사말과 내빈 인사,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으로 이어졌고, 내빈 소개, 개관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으로 끝났다.

이날 단연 눈에 띈 분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참석하신 우토로 어머니들이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금봉 어머니가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셨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배지원상(전 지구촌동포연대 운영위원) 생각 많이 납니다." 일어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큰 눈망울에 담긴 눈길과 내 손을 잡은 손길에서 한국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해 감사하는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토로라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날의 기쁨을 그 동안 고생했던 활동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배어 있었다.

10시에 열린 개관식이 끝나고 평화기념관은 오후 1시 정식 개관을 했다. 1층 다목적 홀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 차 있었다. 이날 160여 명이 방문했고, 이후 5월 5일까지 약 2천 명이 방문했다. 일본의 골든유크(연휴) 기간이기도 했지만, 일본 현지의 폭발적인 관심에 사무국과 서포터즈들은 바쁜 날들을 보냈다. 정식 개관 이후

기념관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개관일 저녁에는 우토로 평화기념관의 의의에 대한 온라인 심포지엄이 있었고, 5월 1일 '마당극 우토로'를 시작으로 3일 정아미 씨 공연, 4일 안성민 씨의 판소리 공연, 5일 히가시구조 마당극 풍물놀이패, 가와구치 마유미, 교토 가무단의 공연이 있었다.

이들 행사 중 백미는 단연코 우토로 농악대의 공연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홍정자 씨가 1989년 농악교실을 처음 연 이래로 시위 현장에는 늘 우토로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풍물을 치며 앞장섰다. 그 농악대가 부활한 것이다. 농악대는 입장하며 사진들을 함께 들고 나왔는데, 농악대에 함께 했으나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의 사진이었다.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이어졌고, 농악대가 재결성되는 등 마을의 공동체는 여전했다. 풍경은 바뀌고 있었지만, 우토로 마을이 품고 있었던 정신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기념관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끔한 3층 건물의 기념관은 단조로우면서도 정갈한 일본 특유의 구조와 인테리어였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채워 넣기보다는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구성들이 안정감을 주었다. 기념관 설계는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여러 시안이 있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총 네 차례의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들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 한국 측 의견, 일본 측 건설추진위의 의견들을 종합하며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갑작스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최종 견적은 예산안을 훌쩍 넘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건축비를 해결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재단도 추가 지원을 하여 자금부족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선을 넘는 혐오범죄와 다시 외치는 역사청산

지난 5월 16일 우토로 방화사건(21년 8월 30일 발생)의 용의자 아리모토 쇼고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그는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일동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나고야 민단 시설에 불을 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자 우토로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혐오범죄는 재일동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수자 집단 또한 대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명백한 혐오 동기가 판결과 양형에 반영되어 일본 사회에 분명한 경고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방화사건은 기념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준 사건이라 본다. 역사에 대한 무지와 역사 부정이 혐오와 결합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토로방화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토로의 거주권은 지켰으니 다시금 역사 청산 문제를 제기할 때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역사청산은 일본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직시하고,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길 미래를 만들기 위함이다. 방화범이 불태워버린 입간판은 그래서 오늘도 유의미하다. "우토로를 지키는 싸움은 지금부터 힘내자!"

글, 사진 | 최상구 KIN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в два этапа. Первый — викторин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ую тематику. Командам предстояло ответить на такие вопросы как: где находятся основные запасы воды, сколько по времени разлагаются пластиковые бутылки, какой мусор самы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й на земле, в каком году вышло первое издание "Красной книги" и другие. За каждый правильный ответ прибавля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10 литров к общему объему мусора, который предстояло собрать во время второго этапа.

Посл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разминки все дружно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свои участки. Несмотря на видимую чистоту, экологический десант за 20 минут собрал более десяти 50- и 100-литровых мешков мусора — стеклянных и пластиковых бутылок, металлических банок, одноразовых стаканчиков, коробок из-под сока, пакето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участники собрали порядка 1000 литров мусор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обращается к отдыхающим с просьбой беречь труд волонтеров и работников коммунальных служб, убирать за собой мусор в специально установленный на асфальтированной площадке бункер и имеющиеся возле скамеек урны.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의 개인적
유품 및 수상, 전시회에서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 공개**

6월 7일 сахалин주 향토박물관 1층 로비에서 '제1대 주지

사 파르후트지노브에 대한 추억' 전시회가 열렸다.

이고리 파블로비치 파르후트지노브는 1950년 4월 16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태어났으며 1972년 크라스노야르스크 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сахалин에 파견되어 엔지니어로 근무했고, 1995년 보리스 옐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를 сахалин주의 주지사로 임명할 때까지 다양한 고위직에 종사했다.

1996년과 2000년 сахалин 주지사 선거에서 그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고리 파블로비치는 сахалин 대륙붕 개발에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그의 치세에서 сахалин주는 석유·가스산업의 외국인 투자량에 있어 2위를 차지했었다. 주지사는 сахалин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자 하여 출장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쿠릴열도 순방 중 비극이 닥쳤다. 2003년 8월 20일 캄차트카에서 헬기 Mi-8기가 실종됐고, 헬기 안에는 파르후트지노브 주지사를 중심으로 сахалин주 정부 지도자 16명과 3명의 승무원이 있었다. 8월 23일에 헬기가 발견되었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사망했다.

전시회에서는 이고리 파블로비치의 개인 물품과 그가 받은 상이 전시되는데 그중에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수첩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7월 7일까지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выставке награды и личные вещ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7 июня в холле первого этаж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начала работу выставка "Первый губернатор. Памяти И. П. Фархутдинова".

Игорь Павлович Фархутдинов родился 16 апреля 1950 года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в 1972 году окончил Красноярский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 в 1972 году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работал инженером и занимал разные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пока в 1995 году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орис Ельцин не назначил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гла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96 и 2000 годах он одержал убедительную победу на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Павлович был ярким сторонником освоения островного шельфа, при не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занимать второе место по количеству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Много времен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одил в командировках, предпочитая из первых уст узнавать о проблемах островитян.

Одна из рабочих поездок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закончилась трагически. 20 августа 2003 года на Камчатке пропал вертолет Ми-8, на борту которого находились 3 члена экипажа, 16 руководящих сотрудни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глав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Фархутдиновым. Вертолет обнаружили 23 августа. Все пассажиры и члены экипажа погибли.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грады и личные вещи Игоря Павловича, среди которых — блокнот, обнаруженный на месте крушения. Увидеть их можно будет до 7 июля, сообщает музей.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